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그는 유서에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나면 (동사무소분들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남겼다.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할머니는 긴급구제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한 달 15만원의 여관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2012년 7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 후 거제 시청 앞에서 음독자살했다. 이씨 할머니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는 유서를 남겼다.

2013년 9월, 선장투석환자였던 부산의 한 아버지는 딸의 취업으로 인한 수급탈락통보를 받고 딸에게 병원비를 부담시킬 수 없어 자살했다. 그는 수년 전 이혼한 후 요양병원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 라며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복지제도를 선성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고 말했지만 실상 현재 복지제도는 송파 세 모녀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 그들은 정부가 바라보기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 이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의 열악한 복지 현실 속에서

# 가난한 이들이,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기초법개정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민생보위)

건강생활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숙인권운동실천단 / 내기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 / 민중의 힘 / 빈민권네트워크(대구) / 부산빈민권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권리대안운동연합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경북청기민연합, 민주노동당청국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권보전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성북구거북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무알의무제제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의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 '전' / 전국빈민연합(전국노경상총연합, 빈민해방청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주의당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휴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연락처 | antipoor@jinbo.net / antipoor.jinbo.net / 02-778-4017 후원계좌 | 국민은행 069101-04-169684 김윤영(기초법개정)